

< 9월 20일 주일 가정예배 설교 >

\* 성경본문 : 출애굽기 16:14-15

\* 설교제목 : 누구를 바라보는가

(출애굽기 16:14-15)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세 가족이 남이섬에 놀러 갔습니다. 가족들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명언을 기억하며, 가족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봉도 없고 디지털 카메라도 없던 시절, 필름 한 장이 소중했기 때문에, 이들은 포즈도 구도도 신중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남이섬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찍기로 합니다. 가족은 지나가던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뒤 사진이 찍힙니다.

여행을 끝낸 뒤 아버지가 현상한 사진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찍은 단체 사진을 보던 가족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운데 있어야 할 가족을 구석에 밀어 넣고 나무를 찍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찍어달라고 사진기를 주었으면, 가족이 잘 나오도록 찍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하게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가족들은 곧바로 삼각대를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아야,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서 낭패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해방됩니다. 해방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롭게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지 3일 뒤에, 이들은 목마르다는 이유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얼마 뒤, 이들은 ‘배고프다’는 이유로 더 거세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먼저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적으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만사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에 대한 갈증도 해결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문제를 간과합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들이 누구에게 원망하는지 보십시오. 바로 모세와 아론, 즉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차이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인생의 성패를 결정했습니다. 모세는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을 남깁니다. 반면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남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그냥 죽고 맙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생존의 문제마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바라보든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시작된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과 마주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